

Interview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에게 길을 묻다

경기도 용인시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

최근 용인시 도시개발 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용인시의 랜드마크가 될 역삼 도시개발사업은 前 시행사와 조합 간 분쟁 등 갈등으로 각종 소송에 휘말리면서 20년 가까이 사업이 담보된 상태이다. 도시계획 전문가에 따르면, '전문가 부족에 따른 정책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라로 지적되고 있다.

본지는 부동산 개발사업 전문회사 (주)세정파트너스 권영안 회장을 만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주상복합용지에는 5,256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며, 약 14,000여 명의 주민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용인시 역삼지구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어떤 모습인가?

용인시의 발전방향에 부합하도록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단지로 특화할 계획이다. 특히 기입지한 용인시 문화복지행정타운의 업무지원기능 등도 고려할 계획이다.

그런데 최근 조합의 재공모 절차로 인해 용인시를 비롯한 조합원 및 관계자들 사이에서 또다시 담보상태로 돌아서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PM사업자에 대한 재공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던데?

우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지난 1차 공무에 선정된 업체도 결국 체비지를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지 못해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2차 공모도 우리 회사만이 해결 할 수 있는 체비지 문제를 도외시한 채 또다시 공모를 진행하고 있어 사실 많은 조합원들께서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용인 역삼지구는 오는 2023년까지 상업·업무용지 복합용지 주상복합용지 공공시설용지 등으로 개발된다. 몇 세대의 아파트와 주민 몇 명이 입주 가능한지? 또, 준공 예정일은 2023년으로 차질이 없나?

역삼지구 개발사업은 향후 4년여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에 하루 빨

지역별로 10여 곳에서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주도로 추진되고 있지만 어느 곳 하나 제대로 추진되는 사업장이 없는 실정이다.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용인시 도시개발 정책의 부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원칙과 마스터플랜이 없다 보니 어떤 사업도 제대로 추진되는 게 없다는 설명인데, 결국 시의 도시개발 정책은 시행사 탓만 하며 지지부진한 상황인건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옛 말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를 끼울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대개 개발사업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가 욕심 없는 마음으로 사업에 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결국 좌초하고, 많은 조합원들이 곤경에 처하게 된다. 역삼지구도 이에 해당되기에 단순한 용인시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역삼 도시개발사업 외에도 용인시 구도심지인 처인구 4개 동 일원에서도 4곳의 재개발 사업이 추진돼 왔었지만, 3곳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 간 내부 갈등과 지역별 사업성 부족 등이 원인이었는데, 조심스럽게 물어본다. 이번 역삼지구 개발 사업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는가? 또한 사업일정 차질은 불가피한 상황인가?

사실 도시개발사업은 이권이 있다 보니 이해관계인들끼리 충돌이 불가피해 각종 소송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어 결국 이해관계인들끼리 소송을 하다가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의 능력이 중요한 데, 도시개발 사업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주)세정파트너스가 NPL 채권을 인수해 각종 소송을 마무리 짓고, 조기착공을 위한 여건을 마련했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사업을 진행한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용인시 역삼지구 외에도 용인시

용인시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 시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아마 용인시에서 문제의 심각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민간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을 것이다. 사업추진자로서 시에 바람이 있다면 사업이 재개된 이후에 우리 조합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각종 행정적인 편의를 부탁드리고자 한다.

끝으로, 이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 알려달라.

우리 회사는 조합원님들의 토지에 대한 보상을 조기에 실시하고, 사업비가 초과되더라도 조합원님들의 추가 부담금 없이 국내 대형건설사가 책임 준공해 조합원들의 재산을 지켜드리고 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이 사업의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이광호 기자 rhee1898@gmail.com



29일(현지시간) 백악관이 있는 워싱턴 D.C.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백악관 앞 시위대 격렬해지자 '지하 병커' 1시간 피신

미대통령 일가족 예기치 못한 상황에 크게 당황한 듯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까지 몰려들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잠시 지하 병커로 몸을 피신하는 일이 있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31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9일 밤 수백 명의 시위대가 백악관 쪽으로 몰려들자 잠시 백악관 내 지하복도에 한 시간가량 있다가 나왔다.

부인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아들 배런 트럼프도 병커로 피신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트럼프 대통령과 그 가족들은 예기치

승원기 기자 mbc0300@gmail.com

용인 역삼지구 도시개발사업

(주)세정파트너스



©용인시청



■주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관전로 62

■전화: 031-333-8116

마스크 5부제 폐지…얇고 숨쉬기 편한 제품 늘린다

6월1일부터 구매방식 없애…마스크 구매 확인 유지

덴탈·비말차단용 마스크 일일 생산량 100만매까지

6월부터 시행하는 새로운 마스크 제도는 시민들이 공적 마스크를 편리하게 구매하도록 바꾸고 18세 이하 학생에 한해 구매량을 늘리며, 여름철을 대비해 얇고 통기성이 좋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공급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요일 구분없이 언제든 마스크 구매… 등교수업 맞춰 학생 공급량 늘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은 29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6월 1일부터 요일별 구매 5부제를 폐지한다"며 "지금까지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었으나, 6월 1일부터는 언제든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요일별 구매 5부제는 줄서기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약 세 달간 시행했다"며 "현재 마스크 생산량이 증가하고 수요가 안정화돼 공적 마스크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9일부터 시행한 마스크 5부제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2개씩 나눠 각 요일별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방식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 출생자는 월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으며, 2·7년 출생자는 화요일에 구매하는 식이다.

이를테면 1991년생과 1986년생은 월요일에 약국에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고, 1982년생과 1977년생은 화요일에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 밖에 끝자리 3·8년 출생자 수요일, 4·9년 출생자 목요일, 5·0년 출생자는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경우 구매할 수 있다.

마스크 5부제는 신천지예수회(이하 신천지) 집단감염으로 코로나19가 크게 유행한 지난 2월 중순 마스크 수급 문제가 발생하자, 식약처가 내놓은 대책이었다.

이후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자, 식약처는 대리구매 대상을 확대하는 등 구매 편의성을 조금씩 높이다가 6월 1일부터는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이번 마스크 정책에는 등교수업을 고려한 조치도 담겼다. 18세 이하(2002년 이후 출생자) 유치원생과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한해 공적 마스크 구매량을 기준 3매에서 5매로 늘린 것이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는 등교수업에 맞춰 학생들이 안심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출생연도를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해 판매처에 제시하면 최대 5매까지 구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가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 공적 마스크 구매 수량을 늘린 것은 등교수업을 2단계로 진행한 데다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마스크 수요량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학교에서 종일 수업을 들으면 마스크 1개로 하루를 버티기 힘들다는 학부모 우려가 커졌다. 부천 쿠팡 물류센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지역 사회 감염이 확산하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의 등교 수업이 시작된 2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여율초등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1학년 학생들이 입학을 축하하는 의미로 왕관을 쓰고 손 씻기 교육을 받고 있다.

◇더운 날씨로 마스크 착용 힘들어져… 정부 공급량 줄이고 수출도 허용

마스크 정책에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른 것은 무더위다.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여름철에는 비교적 두꺼운 마스크를 종일 쓰기가 어렵다. 실제로 5월 이후부터 얇고 통기성이 좋은 텐탈 마스크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텐탈마스크는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 할 때 착용하는 마스크다. 공적 마스크 보다 비말(침방울)을 차단하는 능력은 다소 떨어지지만, 얇고 공기가 잘 통해 나날이 인기가 치솟고 있다.

다만 의료진이 사용하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식약처는 일반인이 사용 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새롭게 신설하고 공급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의료진이 사용하는 텐탈마스크는 평탄하고 각진 네모 형태지만,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일반인이 쓰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성능 면에서 수술용 마스크(텐탈마스크)와 동일하다"며 "생활방역이 중요해지면서

실내에서도 장시간 마스크를 써야 하므로 조금 얇더라도 비말을 차단하면서도 호흡하기 쉬운 마스크를 신설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모양이 평판일 수도 있고 보건용 마스크처럼 가로, 둔근 타원형이 될 수도 있다"며 "기존 제품보다 조금 더 얇으면서 통기성을 확보한 게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얇은 통기성이 좋은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텐탈마스크와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량을 일일 50만개에서 100만개까지 증산할 계획이다.

마스크 정책 변화에 따라 마스크 생산업체들도 숨통이 트였다. 마스크 생산업체가 정부에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공급해야 하는 비율이 6월 1일부터 80%에 60%로 낮아진다.

이는 마스크 주간 생산량이 1억개를 넘어서고, 주간 공급량이 6000만 개 이하로 유지되는 등 생산·공급 체계가 비교적 안정됐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또 'K-방역' 확산을 위해 보건용 마스크 생산량 10%에 한해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올 가을과 겨울철에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은 대비해 9월 말까지 마스크 1억매도 비축할 계획이다.

/신수문 기자

쿠팡 부천물류센터 '공용안전모·PC'에도 바이러스 검출

직업장락커룸환경검체검사에서 오염 확인 29일 이시기준 부천물류센터 96명 확진

쿠팡 부천 신선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면서 지난 29일 누적 확진자가 96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물류센터 내 공용 작업모와 PC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와 광범위한 오염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 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이날 0시 기준 쿠팡 신선물류센터 밭 코로나19 총 누적 확진자는 96명(인천 39명, 경기 38명, 서울 19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도내 코로나19 확진자는 38명(24일 1명, 25일 1명, 26일 1명, 27일 21명, 28일 14명)으로 나타났다. 28일 14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 쿠팡 관련 확진자는 부천이 25명으로 가장 많았고, 김포 6명, 광명 4명, 고양 2명, 파주 1명이다.

29일 0시 기준 물류센터 관련 전수검사 대상(12일 이후 근무 종사자, 외주직원 및 방문객) 4351명 중 88.2%인 3836명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으며, 그 결과, 9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가운데 3285명은 음성 판정, 455명은 검사 진행 중이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증가세를 감안할 때 전수검사 전체가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판단, 4351명 전원에 대해 자가격리 결정 통보했다.

자가격리 대상자의 가족 중 어린이집, 학교,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에 대해 출근 금지 조치하고, 유증상 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27일 오후 3시부터 민간전문가 등과 함께 물류센터 발생현장의 작업장, 휴게실, 납품 락커룸 등 전 구역의 67건의 환경검체를 채



니터링 중이다.

또 지난 27일 확진자가 발생한 부천 중동 유베이스 콜센터에 즉각 대응팀이 파견돼 콜센터 건물 내 접촉자 263명을 자가 격리 조치하고, 심층역학·전수조사 중이다.

전수조사에서는 콜센터 상주 직원 1860명 중 120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651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일산 3동 후곡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60대 남성 B씨(고양 46번)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B씨는 23일 부천물류센터 확진자와 접촉한 뒤 26일부터 기침 등의 증상을 보여 27일 일산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은 뒤 28일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희영 단장은 "5월 초 이태원 클럽을 통해 대규모 감염원 노출 이후, 노래방, 주점, 교회모임, 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산발적 집단감염이 전파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대형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다시금 우리 모두 경각심을 끌어올려야 한다.

용인 76세인 이 확진 환자는 지난 26일 오한 등 증상이 나타나 노래방, 주점, 교회모임, 물류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산발적 집단감염이 전파되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다시 대형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다시금 우리 모두 경각심을 끌어올려야 한다.

상태가 중한 입소자 8명은 포천의료원으로 이송조치하고, 나머지 종

/정체우 기자

주호영, 청와대 뒷산 석불에 시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전날(2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 초청 양당 원내대표 오찬 대화 후 산책 길에 만난 석조여래좌상(석불좌상)에 시주를 했다. 문 대통령,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몇까지 함께 시주하는 모습을 본 문 대통령은 "복 받으시겠다"고 덧담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양당 원내대표 초청 오찬과 관련한 일화를 주가로 공개했다.

세 사람은 전날 낮 12시1분부터 오후 2시3분까지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대화를 한 뒤 오후 2시37분까지 경내를 산책했다.

산책 코스는 상춘재에서 청와대 관저 뒷산에 위치한 통일신라시대 불상 석조여래좌상, 조선시대 정자인 오운정(五雲亭)으로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2017년 6월 참모들과 관저 뒷편을 산책하다가 1974년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이 석불좌상의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해보라고 지시했고, 이에 2018년 4월12일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제1977호)로 지정됐다.

정대 내 첫 국가 문화재다.

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김 원내대표 것까지 같이 준비했다"며 양복 상의에서 시주봉투를 하나를 꺼내 시주함에 넣었다. 주 원내대표는 독실한 불교신자로, 국회 불자모임 회장을 맡은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업어드리겠다"라는 말씀은 김 원내대표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두 원내대표를 조선시대 정자인 오운정(五雲亭·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02호)으로 안내했다.

문 대통령이 두 원내대표에게 '오운정'이라는 현판을 누가 썼는지 확인해보라고 권했고, 주 원내대표가 정자 마루까지 올라가 낙관을 살피다가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쓴 것을 알아차렸다.

국방부는 노후화된 사드 요격미사일 수 만큼 교체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전문가들은 배치된 3년 밖에 안된 미사일이 노후화 됐다는 주장 자체가 의문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 '흑인사망' 시위…경찰서 방화에 주방위군 투입

미네소타반경찰기혹행위험의행진시흘째
최루탄진압에폭동비화·건물십여채불타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가 흑인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가 과격해짐에 따라 주 방위군을 투입했다.

2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주 방위군 투입은 시위대가 백인경찰의 기혹행위로 사망한 플로이드의 죽음에 항의해 3일 연속 경찰과 충돌한 데 따른 것이다.

미니애플리스, 세인트폴에 비상 사태 선언 : 월즈 주지사는 시위 대가 폭도화하고 사태가 악화됨에 따라 미니애플리스와 세인트폴에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 방위군 소집 명령을 내렸다.

미네소타주의 주도인 미니애플리스에서는 헤네핀카운티 정부센터 밖의 광장에 많은 군중이 모여 펫발을 흔들고 조지 플로이드의 이름을 외치며 그의 체포에 관련된 경찰관들에 대한 조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시위대 향해 섬광탄과 최루탄을 쏘았다. 이에 시내를 행진 하던 시위대는 폭도화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라온 현지 뉴스 보도와 동영상에 따르면 시위대는 제3지구대의 경찰서에 방화를 하고, 인근 상점들에 유리창을 깨기도 했다.

미니애플리스의 대부분의 대중교통은 시위로 인해 최소한 저녁 무렵 전면 중단됐다.

메디리아 아라돈도 미니애플리스 경찰서장은 시위가 과격해지면



서 "핵심 집단이 파괴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격분한 시위자들은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에 미니애플리스 경찰서 근처로 몰려들어 건물 위로 올라가 건물 외부에 불을 붙였다.

경찰이 설치한 울타리는 무용지물이었다.

경찰서 안에서는 화재경보기가 계속 울렸으며, 건물이 불타는 모습을 보며 시위대들은 크게 환호했다.

이들은 경찰이 쏜 최루탄과 고무탄을 맞고 잠시 후퇴했다가 경찰이 철수 기미를 보이자 경찰서 건물을 직접 공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소방당국을 인용, 이날 불에 탄 건물이 16개에 이른다고 전했다.

지난 25일 경찰들이 플로이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한 경찰이 플로이드의 목을 무릎으로 찌어 누르는 장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졌다.

김종인 비대위, 초선·원외 인사 중심 쇄신 '방점'

여연총선 예측실패로 부정적 여론 치쳐..해체 수준 개혁 필요

80년대생 3인방 앞세운 비대위 비롯 초선 강연에 나설 계획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는 1일 공식 업무 시작을 예고한 가운데 김종인 비대위의 첫 행보는 여의도연구원 개혁과 초선 당선인을 중심으로 한 당 쇄신 분위기 조성으로 풀려질 전망이다.

지난 20여년간 여연은 역할에 충실했다. 정체 밸굴과 기획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기관보다 더 정확한 선거 판세 분석으로 당의 명실상부한 싱크탱크(두뇌집단) 역할을 했다.

윤여준과 유승민, 박세일, 주호영 등 역대 연구원장은 당내 '브레이인'으로 통했고 현재 한국 정치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당 안팎에서는 여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나오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해서다. 이번 4·15 총선 과정에서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미래한국당과 합쳐 150석을 얻을 것이란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김 비대위원장도 여연의 개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1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지금으로서는 기능을 상실해버렸기에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쇄신해야 한다"며 "지금 흔히들 여연이 싱크탱크가 돼야 한다고 하지만, 싱크탱크가 되려면 구성원이 싱크탱크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가 보기에는 현재 여연의 기능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가 핵심인데 대통령 선거에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구로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비대위원장은 '쇄신'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초선 당선인 및 원외 인사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모습이다.

4·15 총선에서 보수진영의 민낯을 보고 개혁을 요구하는 당내 최대 집단인 초선 의원을 규합, 향후 당 쇄

신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현역 의원의 반발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김 비대위원장은 사무총장에 김선동 의원을 내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서울 도봉을에서 낙선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특정 계파에 속하지 않는 정책통으로 분류된다.

/김영찬 기자

이낙연 "코로나 다시 불안정...고용 악화"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
방역망을 촘촘히 개인의 방역을 철저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9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이 다시 불안정해졌다"며 "방역체계를 새롭게 해야겠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역망을 촘촘히 조이고 개인의 방역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며 "특히 학교의 방역이 걱정이다. 학생들이 마스크 착용 등 새로운 생활수칙에 잘 적응하도록 학교에서도 지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 위기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업의 생존과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며 "기존 정책은 빈틈이 많고 시야도 좁다. 고용 악화에 대처하려면 훨씬 더 포괄적이고 강력하게 시야를 중장기로 넓힐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자리 뉴딜'이란 의제를 꺼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일자

민경욱 "황교안, 회담 때 박근혜 보석 요청했지만..."

"황교안, 석방 상태서 치료·재판
문대통령, 법적으로 어려워"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29일 "황교안 전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을 요청했다"며 "노령에 몸이 편찮으신 여성 대통령께서 석방된 상태에서 치료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문 대통령은 법적으로 어렵다며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황 전 대표와 문 대통령이 정와대에서 만났을 때 참가로 가서 잡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 장면이 사진 기자의 렌즈에 포착돼 보도된 적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민 의원은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황 대표는 백범기념관에 갔다가 흥분한 태극기부대로부터 물세례와 함께 박 전 대통령을 배신한 배신자라는 욕설을 들었다"며 "그러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국회로 돌아와서 기

다리던 기자들이 봉변을 당한 소감을 물었을 때도 황 전 대표는 다른 말 섞지 않고 '저의 길을 가겠다'라고 대답했던 기억이 난다"며 "황 전 대표는 입이 무겁고 의리 있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민 의원은 "그 말을 대통령께 어찌 달라고 했던 분도 의리가 있는 분"이라며 "저도 지금까지 가슴에 품어왔던 이 사실은 얘기를 하는 게 최소한의 의리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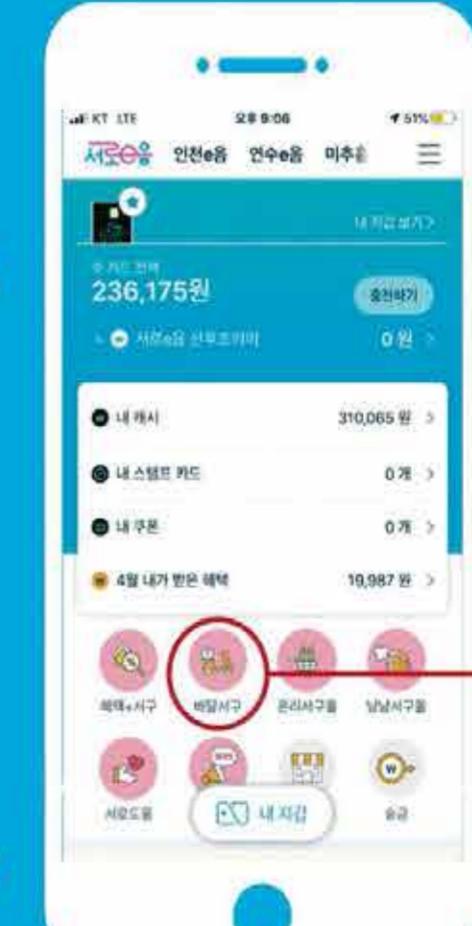
/송진호 기자

착한 소비의 시작!!
전국 첫 공공배달 앱 서로e음



사용자는
혜택 올리고

소상공인은
수수료 내리고



* 서로e음에서 배달서구를 클릭해주세요

인천광역시 서구



윤미향 "기금 유용·안성쉼터 의혹 사실 아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은 지난 29일 정대협 모금액의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 미지원 논란과 관련해 "이용수 할머니의 여러 지적과 고견을 깊게 새기는 것과 별개로 직접 피해자들에게 현금 지원을 목적으로 모금한 돈을 전달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대협은 그동안 전체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을 세 차례 진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어 1992년 국민모금을 통해 얻은 기금으로 모든 신고 피해자에게 25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 정부가 아시아여성국민기금에 반대하는 피해자들을 위해 지급한 4300만원을 지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2015년 한일합의에 반발한 할머니들을 위해 모금해 각 1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안성쉼터(안성힐링센터) 고가매입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 과정에서 '이규민 당선인의 소개로 힐링센터를 높은 가격에 매입하여 차액을 횡령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이 또한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할값 매각 의혹에 대해서도 "시세와 달리 할값에 매각된 것이 아니라 당시 형성된 시세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윤 당선인은 "오랜 시간 매각이 지연되는 점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기부금에 손해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힐링센터 매입 및 매각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과거 주택 구입 자금 출처 의혹에 대해선 "현재 제가 살고 있는 수원 권리구금과 엘지아파트의 경매 매입을 포함해 가족들이 현금으로 주택 5채를 구매했는데 제가 정대협의 자금을 횡령해 사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일은 단연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윤 당선인은 '개인 명의 계좌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 논란에 대해선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다"며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30년의 수 많은 사실을 재정리하는 일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며 "저의 입장 표명을 기다리게 해드려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설명했다.

/정기혁기자

“여기어때?” 경북의 관광매력을 소개합니다

경북도↔여기어때 업무체결, 모바일 플랫폼 활용 관광마케팅
-호텔, 리조트, 펜션, 액티비티 등 1,451개 가맹점 할인 쿠폰 발행

좁쳐 럼 깍이지 않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관광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경상북도가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경상북도는 당초 6월부터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대규모 마케팅 이벤트로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을 준비하고 있으나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에 대한 경계태세를 낮출 수 없어 우선적으로 온라인과 모바일을 활용한 마케팅 확대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는 5월 29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내

대표 종합숙박, 액티비티 예약 플랫폼 여기어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온라인 할인 이벤트를 통한 경북관광객 유치와 이를 통한 관광업계 지원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최문석 (주)여기어때컴퍼니 대표가 직접 서명한 협약에 따라 여기어때는 플랫폼 내에 ‘경북관광 그랜드 세일’ 기획전을 운영하게 된다.

이번 기획전은 여기어때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경북의 1,291개의 숙박업소(호텔, 리조트, 펜션,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와 160개 액티비티 여

행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15%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구매 조건과 최대 할인금액을 정하지 않은 덕분에 실질적인 혜택은 더욱 클 것으로 기대되며 경북으로 여행을 선택하게 되는 충분한 메리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텐데믹으로 올 여름 해외 여행 대신 국내여행을 선택하는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시기에 맞춰 경상북도와 여기어때가 기획전을 운영함으로써 경북으로의 국내여행 확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또한 여기어때 측에서는 할인이벤트와 함께 자체 플랫폼과 바이럴 마케팅을 통해서도 경상북도 추천여행지에 대한 특별홍보를 진행할 계획

이며 대부분 소상공인인 숙박업소의 영업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컨설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는 이번 온라인 이벤트와 함께 도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방역과 소독을 철저히 하는 클린&안심 경북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함으로써 관광객들이 깨끗하고 안전하게 경북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협약으로 국내 대표 숙박·액티비티 플랫폼인 여기어때를 통해 경상북도가 보유한 관광매력을 소개하게 됐다”고 밝히며,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광객 유치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앞으로의 방향을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경주, 오고 싶은 학교·반가운 선생님 즐거운 등교



경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서정원)은 관내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등교 수업관련 관내 초중학교 등교수업을 격려하는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등교수업운영 현장 방문은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이후 관내 초1~2학년, 중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등교하는 날이어서 교직원 및 학생, 학부모의 높은 관심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동안 등교수업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서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방역 및 등교수업 운영 일정, 등교수업 방법 지침관련 구성원의 협의를 통해 등교 준비를 꼼꼼히 해왔다.

특히 경주여중에서는 교문에서

경주/한반식 기자

파주시, 운정3지구 A32 블록 주택사업계획승인

경기 파주시는 운정신도시(3지구) A32블록 공동주택(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최근 승인·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역 내 장비·자재·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조건이 부여된 A32블록 주택건설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지구 남서측에 있는 A32블록 아파트는 사업부지 북측과 동측의 30 미터 이상의 도로와 남측의 공원이 계획되며 계획도로와 접한 면에는 주차대수 확대 ▲드롭존 정비(2곳) 등이 반영됐다

파주/김성태 기자

물은 지하1층~지상15층, 15개동, 총 778세대, 총 사업비 3,598억 원의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단지 내 환경·미관·기능을 고려하고 사업부지와 접한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아파트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남측

공원과의 연계를 고려한 보행로·보행약자 계단과 승강기 설치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지 내 텃밭 ▲지하주차장 동선 시인성 개선 및 주차대수 확대 ▲드롭존 정비(2곳)

등이 반영됐다. 이를 통해 평택시는 내수면 생태계복원 및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최근 관내 대단위 내수면인 평택호와 남양호에 뱀장어 치어 5만 마리를 방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뱀장어는 전염병검사(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와 유

전자검사(한국수산자원공단)에 합격

판정을 받은 길이 10cm 이상의 우량종묘로 최근 2년간 뱀장어 치어의 높은 단가로 뱀장어 대신 쏘가리 및 참게 방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년에는 뱀장어 치어 단가 하락으로 뱀장어 치어방류를 재개하게 되어 어업인들의 큰 기대와 호응을 얻고

있다.

뱀장어는 필리핀 근해에서 부화하여 우리나라 및 일본 등지의 내수면으로 거슬러 올라와 성장하고 산란을 위해 다시 바다로 내려가는 습성을 가지고 있으며, 판매단가가 높아 어민들이 선호하는 어종 중에 하나이다.

한편 평택시 축수산과에서는 친환경 어장조성을 위해 매년 100톤 규모의 폐어망 및 생활쓰레기를 수거하는 정화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해면·내수면 수생태계 및 수질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평택/유기영 기자

신나는 예술여행 영남권 예약국악단 시작을 알려

문화 기반이 부족한 곳에 찾아
대국민 문화향유 증진사업



<2020년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 기반이 부족한 곳에 찾아가 문화예술 공연을 제공하는 대국민 문화향유 증진사업으로, 한국문화 예술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더 많은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단체들이 전국을 누비고 있다.

2020년 신나는 예술여행 영남권 예약국악단의 두 가지의 한(韓)‘한국음악 속 한국사’는 안동시립민속박물관 개목나루 야외 특설무대에서 6월 13일 ~ 7월 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공연으로 시작을 알린다.

예약국악단의 두 가지의 한(韓)‘한국음악 속 한국사’는 삼국시대부터 근대음악까지의 한국음악이 변화하는 과정에 한국사의 어떠한 시대적 환경이 녹아있는지를 알아보는 공연으로, 60분동안 관객이 직접 민요를 배우고 불러보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수자원공사 영주권지사, ‘영주댐 주변지역 육영사업’



댐주변지역학교 학생들 교육여건 개선 1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

한국수자원공사 영주권지사에서는 영주댐의 인식 개선을 위해, 1천2백여만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 예정으로 밝혔다.

육영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댐주변지역학교 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변지역 지원을 위해 지원된 이

번 예산으로 문수초등학교(교장 김현규)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활동, 온라인 개학 관련 학습 기자재, 학생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중심으로 자체 계획을 수립 사용할 예정이다.

지원된 한국수자원공사 영주권지사 육영 사업은 올해로 3년째 지원되었으며, 이에 앞서 2018년도에는 4~6학년 재학생들이 1박2일간 하이원리조트 스카캠프에 참여해 스키 기본자세부터 응용동작까지 자신의 수준에 맞는 그룹에 편성되어 평소에 배우기 어려운 스키를 신나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등으로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졌다.

2019년도에는 또, 6학년 학생들이 2박3일간 제주도 수학여행을 실시해 제주도에서 느낄 수 있는 이국적인 풍경을 감상하며 다양한 견학 및 체험활동의 기회를 가져보며 자신의 꿈을 키우고 진로를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영주/정승초 기자

소백산 맑은 기운을 담은

양질의 햇양을 먹고 자란 풍기인삼

세계 제일로 알려진 우리나라 고려인삼,
그 중에서도 제일로 평가 받는 풍기인삼입니다.

홈페이지 www.kpgshop.co.kr
문의전화 054-638-3434

풍기인삼농협

순천시 동천에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 등 449종 확인

수달, 구렁이,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종 4종, 천연기념물 9종 확인

하천 생태복원 지표종 '은어' 돌아와, 순천 바이오블리즈에서 확인

전남 순천시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상임의장 송경환)는 도심 속 동천과 죽도봉에서 수달과 구렁이, 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 야생동물과 천연기념물 9종 등 7개 분야 총 449종의 생물을 관찰했다고 31일 밝혔다.

순천시민 생물다양성 대탐사 '바이오블리즈' 행사를 주관한 순천시민생물다양성 대탐사 시민위원회는 지난 5월 23일 ~ 24일까지 순천 도심 동천 일대에서 시민과 학생, 어린이, 전문가 등 150여명이 24시간 동안 서식 생물종을 탐사했다.

이번 생물다양성 탐사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야생동물 I급 수달과 구렁이, II급 흰목물떼새가 관찰됐고, 두견이, 소쩍새, 솔부엉이, 원

앙 등 천연기념물 9종이 확인됐다. 특히, 하천의 생태복원 지표종인 '은어'가 발견되어 지난 20년간 순천시가 하천 환경개선과 수질관리에 투자한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시민들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바이오블리즈에는 가족단위로 참가한 시민들이 많아 순천시민들의 생태보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주었으며, 참여한 어린이들은 동천 곳곳에서 벌어진 '생물종 보물 찾기' 재미에 흥미 빼져들었다.

곤충 탐사팀에 참여한 한 어린이는 "오늘 곤충박물관에 다녀온 것 같아요"라며 즐거워했고, 다른 한 시민은 "가까이 사는 동네 하천에 동식물이 다양하게 서식하고 있다는 게 신



기하고 많이 배웠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번 바이오블리즈를 통해 확인되고 기록된 생물다양성 자료는 보고

서로 밭간되어 도심 속 생태축 연결과 동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순천 최종기 대기자

화순군, 하천 부유 쓰레기 수거...수질오염 예방

노인 일자리 10명 창출 '일석이조'
12월까지 400t 수거 처리할 계획

전남 화순군이 영산강·섬진강, 연계 하천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해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근로자 10명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천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부유 쓰레기를 연중 수거해 12월까지 약 400t를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수거한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

한 쓰레기는 선별해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수거 인력으로 취업 취약계층과 장년층 10명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해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해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통해 쓰레기 321t을 수거했고, 742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화순 이윤상 기자

안성여성단체, 폭력없는 지역사회 만들기 앞장

경기 안성시 여성단체협의회는 폭력 없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서운중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관내 10군데 중학교와 초등학교 1,600여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안성시와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가 민·관 협동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현직 경찰관인 전준석 강사(평택경찰서 경무과장, 청문감사관)를 초빙하여 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에 대한 실제사례 중심의 강의로 신뢰감과 안정감을 주며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서운중학교 강의는 당초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교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장 중심의 어렵고 다양한 실제사례를 토론 형식으로 진행 됐다.

이정숙 안성시여성단체협의회장은 "사소한 시비가 폭력으로 이어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되는 만큼,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게 올바르게 성장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여성단체

협의회가 폭력의 사전예방 활동 등

폭력 없는 안전한 안성시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안성 유기영 기자

이천지역 매출액 분석 전년보다 6.8% 감소

경기 이천시는 신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천시 지역 경제 영향 분석과 정책 방안 수립 시 활용 가능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2월 22일부터 3월 말까지의 신용카드 이용 데이터를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년도 동일기간(2019. 2.21.~3.31.)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이 평균 6.8%가 감소하였다.

특히 2월 넷째주에 전체 매출액이 12.1%가 감소함으로서 가장 큰 감소폭을 나타냈다. 이후 코로나 확산이 주춤하면서 매출액 격차가 줄어 들기 시작하였다. 매출액 감소폭이

가장 큰 업종은 음식으로 19.4%가, 여가는 18.0%, 의료 6.8%의 순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활서비스, 소매·유통 업종은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법면이 21.7%로 매출액 감소폭이 가장 커졌으며, 중리동 19.2%, 창전동 17.5%, 모가면 16.5%, 장호원읍 15.8%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천시에서는 지난 2월 '인구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2020년 인구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 바 있으며, 빅데이터 분석을 지속적으로 진행함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모란역 인근 건물을 물색해 사업비 21억 2100만 원(도비 8억 7600만 원 포함)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했다.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 6월 1일 문 열어

경기 성남시는 중원구 성남동 모란역 5번 출구 쪽 모란드림시티 건물 2층에 이동노동자 쉼터를 마련해 1일 문을 연다.

이동노동자 쉼터는 근무 특성상 대기시간이 필요하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요양보호사 등 이동 직업군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이용 대상이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이 편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모란역 인근 건물을 물색해 사업비 21억 2100만 원(도비 8억 7600만 원 포함)으로 이동노동자 쉼터를 조성했다.

모두 202㎡ 규모이며, 휴게 흡

남·여 휴게실, 강의실, 상담실, 탐비실 등 8개 공간으로 꾸며졌다.

안마의자, 헬스체어, 체지방측정기, 무인택배함 등의 시설도 들어놨다.

한꺼번에 40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이며, 월~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은 한국 노총 성남지역지부가 3년간 맡는다.

성남시 고용노동과 관계자는 "성남시 이동노동자 쉼터는 특수고용직과 같은 노동 취약업종 종사자의 휴식공간이자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장(場)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 김난희 기자

보성군, 어업 위해 은어 치어 6만 5천 마리 방류

자연환경 적응력이 높은 어종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



전남 보성군은 내수면 생태계 보전과 어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벌교읍 칠동천, 득량면 득량천 등 관내 하천에 토종어종인 은어 치어 6만 5천 마리를 방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방류한 은어 치어는 평균 크기가 5cm 이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질병검사를 통해 양호한 종자로 선별했고, 자연환경 적응력이 높은 어종으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성군은 내수면 생산종자 보호와 증강을 위해 지난 20일에는 접농어 치어 10만 마리를 방류하는 등 지속적인 해양 자원 관리에 나서고 있다. 오는 6월부터는 뱃장어, 쏘가리, 자라 등 내수면 수산종자와 해수면 수산종자 30만 마리를 방류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방류를 통해 내수면 생태계의 회복과 풍부한 어족자원을 조성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수산자원 보호에는 방류뿐만 아니라 어업인의 협조가 더욱 중요하니, 이번에 방류한 은어 치어 보호를 위해 방류 수면에 대한 일정기간 포획금지에 협조해 달라."라고 밝혔다.

한편, 은어는 가을에 수정·부화해 바다로 내려가 육지와 가까운 곳에서 거울을 보내고 이듬해 3월에서 4월경 하천으로 거슬러 올라와 서식하는 단년생 어종이다. 보성군은 은어 산란 적합지역인 내수면과 해수면 경계 지역(칠동천, 득량천)에 치어를 방류했다.

보성 김정필 기자

양주시, 옥정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 24시간 지킴이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훼손 방지를 위해
건립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의 뜻지키기 위해



경기 양주시는 옥정중앙공원 내 건립된 평화의 소녀상 훼손 방지를 위해 관내 CCTV를 통한 24시간 관제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최근 타지역 소녀상에 수갑과 손팻말이 놓이고, 둘로 얼굴을 찌러는 등 잇따라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건립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다.

시 통합관제센터는 소녀상 주변 2대의 CCTV를 통해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양주경찰서와 협력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다.

특히, 옥정중앙공원 내·외 30여대의 CCTV와 연계해 보다 효과적으로 소녀상 훼손을 방지할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양주 평화의 소녀상은 소녀상 건립준비위원회의 영화제, 문화행사 등 건립운동과 2천여명의 시민이 참여한 1억 8백여만 원의 모금을 통해 이뤄졌다.

소녀상을 제작한 김택기 조형미술작가는 소녀상의 머리 형태는 강제 노역에 끌려가는 고통을, 손에는 나비를 통해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을, 발에는 소녀들의 고결하고

순수한 모습을 담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

특히, 소녀상의 의복을 당시 의복으로 재현, 과거의 상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물지 않았음을 알리고 진정한 사과와 보상이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시 통합관제센터 관계자는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나섰던 수많은 시민의 염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CCTV를 통한 관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녀상 지역으로 나선 양주시 통합관제센터는 관내 4천여개의 CCTV와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선별관제시스템을 통해 유연하고 탄력적인 집중 관제환경을 구축, 24시간 양주 지역 곳곳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양주 김승근 기자



완전한 해결, 든든한 시정
굳건한 연결, 튼튼한 기본
희망찬 숨결, 탄탄한 미래

이천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심폐소생에 나선다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녹이기 위한 조치

민생안정 지원 능동적·선도적 대응 나서

이천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지원할 능동적·선도적 대응에 나섰다.

세계적 경기 침체의 여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계절이 무상하게 꽁꽁 얼어붙은 지역 경제를 녹이기 위한 이른바 '36 아랫목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코로나 발생 이후로 구분될 만큼 사회·경제 분야에서 유례없는 벽과 절벽을 맞이한 시기에 대내외의 경제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중장기적 발전 아젠다를 추가로 수립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까지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실행 가능한 36개 과제를 지난 5월 초순부터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생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해 선금집행 특례와 신속집행 추진 8대 지침 등을 적극 활용하고 공사 계약 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또한 지방세는 기한연장과 분납, 체납금 및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한편, 공영주차장 모든 구간을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전면 무료 개방하고 3개 전통시장 환경 정비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한다.

이천시는 지역화폐의 충전한도를 기준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보증료 및 특별경영자금 지원과 중소기업 피해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 균무환경 개선사업, 무급휴직자 및 프리랜서 등 취업취약계층 피해사각지대 일자리 지원에 혼력을 다할 예정이다.

지역산업의 근간인 농·축산업 지원을 위해 설봉공원 내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배달 선호의 소비 패턴 변화를 감안한 소포장지 지원, 학교공급이 중단된 우유를 시험 구내식당 배식,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요를 파악 후 필요 기관에 즉시 공급하는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 농·축산농가의 판로개척과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미사용 금액을 지역화폐로 전환하여 상반기에 집행토록 하고, 착한 선결제 국민 캠페인 동참과 부서별 퀄리티 간식이벤트 전개, 주1회 부서별 전통시장 가는 날 정례화 등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방안을 빠놓지 않았다.

엄태준 시장은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간신히 버티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릴 응급대책

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며 "지역경제에 넘치던 혼기와 활력을 되찾아 오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라는 면구름에게 일상의 햇살을 빼앗긴 지금 그 동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는 총기를 보였던 이천시가 침체된 지역경제의 응급실이 되어 '희망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천유기영 기자

개별공시지가 5.48% 상승…하남시 9.53% 많이 올라

하남시 9.53% 최고 상승,
파주시 1.24% 최저 상승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5.4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은 5.95%, 수도권 6.7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465만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공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가가 상승한 토지는 390만 4,860필지(85.1%)로 나타났으며 하락한 토지는 30만 7528필지(6.7%), 변동이 없는 토지는 30만 158필지(6.6%), 신규 조사 토지는 7만 4661필지

(1.6%)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많은 하남시로 9.53% 상승했으며, 가학동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추진하는 광명시 8.33%, 지식정보타운·과천주암지구 개발사업 등의 영향을 받은 과천시 7.54% 순이었다.

반면 파주시(1.24%), 포천시(3.10%), 동두천시(3.28%)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지난 해와 같이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현대백화점 부지로 m²당 2,370만 원, 가장 낮은 곳은 포천시 신북면 삼정리 임야로 m²당 525원이다.

개별공시지가는 29일부터 시·군·

구청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6월초부터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o.kr)에서 지도 기반으로 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있다.

결정된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29일까지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김준택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확한 토지특성조사와 전문 감정평가사에 의한 공정한 지가검증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승곤 기자

의정부 주사랑교회 해제 시 까지 집합금지명령

확진자 모든 동선 방역조치 완료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 최선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최근 확진된 의정부 #39번 확진자가 소속된 의정부 주사랑교회에 대해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확진자는 8명이 확진된 남양주 화도읍 우리교회 확진자의 접촉자로, 최근 서울 양천구 은혜감리교회를 다녀왔으며, 부부가 의정부동에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서울 소재 라파치유기도원에서 의정부 확진자와 접촉한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의정부시는 확진자가 소속된 교회에 대해 별도 해제 명령 시 까지 집합금지를 명령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

자 및 이용자, 신도 등에 대해 형사 고발 및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되며, 이를 어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엔 시설종사자나 이용자에게 치료비와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 청구도 가능하다.

의정부시는 확진자의 모든 동선에 대해 방역조치를 완료하고, 집단감염 위험 시설인 유흥주점과 코인노래방 등에 대해서도 집합금지를 명령했으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한 추가 감염예방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 모두가 생활 속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집단모임과 교회예배 등을 자제하여 주시고, 생활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라며, 불가피한 행사 개최 시에는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의정부/김승곤 기자

광주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 점검 시행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식품제조기공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

광주시는 유전자변형식품(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역 내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관리대상 식품 제조·가공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스류, 장류, 면류 등 콩이나 옥수수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조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제조업소 제품과 시중에 유통 중

인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관리대상(대두, 옥수수, 면화, 유채, 사탕무 등) 원료사용 여부(구분유동증명서 등 증명자료 확인)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GMO-Free, Non-GMO 등 강조표시 및 유사표시 적정성 여부 등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지도점검에서는 위반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수거검사를 통해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이근학 기자

하남시, '도로점용료 감면·환급 조치' 시행

2020년도 도로점용료 6억여 원 감면
소상공인 서민들 경제적 지원 펼쳐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서민 등을 대상으로 도로점용료 25%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 판단 하에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로, 하남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3개월분인 25%를 감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과 서민들의 경제적 지원을 펼친다.

감면 및 환급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민간 사업자·개인이며·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시는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1천 435건, 24억 원 중 25%인 6억여 원의 감면액을 환급해, 시민

들의 부담을 경감할 예정이다. 이미 납부한 시민들은 환급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31-790-6429)로 제출하거나 하남시청 건설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김상호 시장은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개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하루 빨리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하남/이경희 기자

광명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개최

아동보호 및 코로나19 생활방역 수칙당부
광명시 아동친화 환경 우수 지자체 선정



광명시는 가림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열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캠페인에 참여해 아동학대 예방 안내와 함께 코로나19로 90여 일만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박 시장은 "오랜만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니 기쁘다. 시는 학교 개학 안전 대책 위원회를 구성해 학생들의 안전한 등교를 준비해 왔으며 열화상카메라가 없는 12개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지원할 계획이다"며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미래를 이끌어 갈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받고 존중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어른들이 책임감을 갖고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캠페인에는 광명시 관계자, 아동보호전문기관, 광명시 약사회가 함께 참여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

캠페인 참여자들은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응원하는 의미를 담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마스크, 항균 물티슈, 코로나19 예방 생활수칙 안내문을 전달했다.

한편 광명시는 아동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 도시 조성에 노력해 왔으며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5월 5일 '아동친화 환경 조성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광명/정재우 기자

공간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 '스마트도시 시흥'

시흥시, 한국국토정보공사 업무협약 체결
자원을 합리적 효율적인 스마트시티를 구축

시흥시는 효율적인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두 기관은 스마트시티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흥시의 공간과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효율적인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종합적 활용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상호 발전 및 협력 관계를 즐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 발굴 및 적극적인 추진 ▲스마트시티 관련 데이터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시흥시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스마트시티 관련 시흥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디지털트윈,

드론활용, 국토지능화 및 가상화 등 LX의 다양한 스마트시티 선도 기술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시흥시에 최적화된 사업을 발굴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는데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 연구원은 현재 시흥시를 실증도시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스마트시티 오픈 이노베이션 자체자율과제인 '시흥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및 글로벌 협력 지원체계 구축'에 대한 연구기관으로 지난 9월부터 참여하고 있으며, 시흥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계획 수립, 이노베이션 센터 기획·운영, 글로벌 협력 지원체계 구축·▲스마트시티 관련 시흥시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향후 5년간 추진하게 된다.

시흥/김대성 기자

외래품종 대체 벼 신품종 육성 김포금쌀 경쟁력 강화

김포시농업기술센터는 관내에서 많이 재배되는 추청 등 외래품종을 우수한 국내품종으로 대체하고 나아가 김포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벼 신품종 육성 실증 시험포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실증 시험포에는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와 경기도농업기술원의 도움을 받아 최고품질 선정시험 9품종, 우량계통 적응성 검정시험 9품종 등 18품종을 재배해 김포에 적합한 중만생종 벼를 선발 보급할 계획이다.

김포의 주력 품종인 추청의 경쟁력 약화로 국내 육성 신품종 도

입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최소 1년에서 길게는 3년에 걸쳐 김포에 맞는 벼 품종을 선발하고 농협RPC 등 가공센터와 연계해 신품종 벼 재배를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두철언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실증 시험포 운영을 통해 김포지역에 적합한 대체품종을 선발 육성함으로써 김포금쌀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은 물론 소비자 만족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포/차덕문 기자

화성시,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재난기본소득 지급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생활을 지원
5월 4일 이전 체류한 F-6,F-5

화성시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로

경북도, 지역산업과 연계한 공항 활성화 전략 마련!

지방공항과 산업연계 및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보고회

지역 공항시설 개선 방안 및 산업과 연계 활성화 검토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적 저가항공사의 등장으로 항공수요는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으며, 항공자유화의 지속적인 추진 및 항공운송시장의 활성화, 중국 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항공시장 확대가 계속되고 있다.

이어, 경북도는 한국항공대학교(산학협력단) 등과 함께 「지방공항과 산업연계 및 이용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도청(화랑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내에는 포항, 울진, 예천에 지역공항이 위치하고 있으며, 조만간 임시가 선정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2025년 개항 예정인 울릉공항을 포함하면 경북도는 5개의 공항시설을 보유하게 된다.

현재, 민항이 취항하고 있는 공항은 포항공항 뿐이며, 예천은 군비행장으로, 울진비행장은 비행훈련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 결과로 제시된, 공항별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면, 포항공항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2016년)에서 2035년 65만명 정도의 수요가 예측되었으나, KTX노선 개통 등으로 수요가 정체되고 있으며, 고질적인 문제점인 결함률 개선을 위해 항행안전시설을

상향(비정밀계기 → CAT-I*), 항공기 이착륙 시 시정확보를 위한 장애물 제거, 활주로 길이 연장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으며,

* CAT : 기상악화로 활주로가 잘 보이지 않아도 공항에 설치된 각종 무선·등화·활주로 시설을 활용해 자동 비행으로 착륙할 수 있는 시정거리를 등급으로 구분한 것.

공항마케팅 차원에서는 공항의 승객 유인효과를 고려하여 공항이 위치한 도시와 연계 가능한 인근도시나 유명 관광지 지역명을 병기 사용하는 공항명칭 변경 방안이 제시되었다.

울릉공항은 국내 최초 도서지역 소형공항으로, 개항시 기준 해운·항공 전환수요 뿐만 아니라 관광수요 신규발생이 예상되며, 관련 지역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울릉공항은 연간 53만명 규모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는 터미널과 활주로(1,200×36m) 시설이 계획되어 있으며, 개항후 내국인 관광객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활주로 연장으로도 극동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근거리 외국인 관광객 유치가 가



능하나, 국제선 및 부정기 항공편 등의 활성화를 위해 활주로 길이 연장 가능성도 검토 하였으며, 내국인 면세점 도입, 도서지역 항공료 지원정책 등이 개선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울진비행장은 기후특성상 비행 가능일수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서 기존의 한국항공대학교 및 한국항공전문학교의 비행교육원 이외의 추가 교육기관 유치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며, 기존 교육기관의 질적 고급화를 통한 교육생 확보가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또한, 예천공항의 재개항 가능성은

기준 여객터미널의 소유권이 국방부로 이관(2005년) 되면서 군용시설로 리모델링 되어, 현재는 여객터미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기에, 민항 재취항시 여객터미널 신설을 검토하여야 하며, 항공수요 측면에서도 타 교통수단의 발달, 장래 건설될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영향 등을 감안할 때, 승객 유인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형항공 운영에 따른 항공교육, 정비훈련 등 항공훈련센터 등이 현실적 대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정승조 기자

경북도 사회적경제 특별판매, 누적 매출액 14억원 돌파!

건강보조식품이 18%, 소비트렌드 맞춤 주효
대구시 구매 25% 차지, 대구경북 상생협력

경북도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상운영을 돋우기 위해 지난 3월과 5월에 실시한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온·오프라인 특별판매의 누적 판매액이 14억원을 돌파했다고 31일 밝혔다.

우체국쇼핑몰을 통해 진행된 온라인 할인판매는 4만 1천건의 주문과 6억 4천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했으며,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지 않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해 진행한 오프라인* 할인판매는 7억 8천만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참여기업도 3월에 비해 92% 증가해 총 114개 기업이 특판행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판로개척에 도움을 받고 있다

* 오프라인 판매방식 :

통신판매업 신고를 아직 마치지 못한 기업을 대상으로 주문서를 별도로 접수하여 납품, 배송, 입금 등 종합관리

매출액의 96%가 농수산물 원물 및 가치식품 등 음식류였으며 생강, 오미자, 벌꿀 등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건강보조식품*이 매출액의 18%를 차지해 건강과 헬스, 편리함을 증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는 상품개발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 주요 건강보조식품 : 생강진액(스틱형), 오미자 효소, 벌꿀 스틱

오프라인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구매금액을 보면, 경북에 이어 대구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강원, 서울, 부산 등 17개 광역자치단체가 골고루 구매한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대구시의 구매금액이 전체의 25%를 차지할 만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대구경북 상생협력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가지고 제품을 구매해 경북의 사회적경제기업에 큰 힘이 되었다.

전국 사회적경제기업의 구매액이 매출의 61%를, 공공기관이 16%를 차지한 것은 사회적경제의 상생연대와 공공기관 우선구매가 상당히 자리잡았음을 보여준다.



한편, 대량주문이나 단기간동안의 주문 증가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납품지연이나 오(誤)배송 등이 발생해 소비자 불만사례가 일부 접수된 것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단기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협력기관*과의 상시 판로채널을 개통하고 다양한 통로를 통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 주요 협력기관 : 주이우홀, 신용보증기금,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코레일(경북본부), 쭈KT, 쭈하나투어등

중장기적으로는 대형유통사 입점 등 판로 다원화를 위해 소셜벤더*를 모집·육성하고 온·오프라인을 맴挛한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해 안정적이고 자립 가능한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 소셜벤더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민간시장

진출을 위하여 역량강화, 상품발굴, 유통채널 입점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판로개척 활동을 수행하는 유통 전문조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공익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일반시장 내 벤더와 차별화 또한, 유망한 사회적경제기업은 해외수출을 교두보 확보, 박람회 참가, 해외통상 기관과의 연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소비자의 지속적인 신뢰가 중요하기에 소비자 불만제로, 제품의 질적 향상, 소비 트렌드를 반영한 상품개발 등 관련 컨설팅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호진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전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공기관에서 경북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에 많은 지원을 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면서 “사회적경제 특별판매의 성과를 충분히 분석하여 판로지원 정책을 좀 더 세밀하게 설계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조 기자

문경 하수도 정비로 무장해도 시조성

문경시는 무장해 도시조성의 일환으로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접촌 체리구역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총 사업비 111억원) 공사구간 중 중앙로(중앙시장 사거리~접촌농협) 일원에 어린이, 노인,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도로이용 및 보행 중 불편함이 없도록 무소음·안전그레이팅으로 교체 설치했다.

도로 측구에 설치된 무소음·안전 그레이팅은 차량 진행에 따른 소음 방지는 물론, 황색과 흑색으로 디자인되어 차량 및 보행자가 인도 접근시 안전을 한 번 더 인식하고 도시미관 정비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문경시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의 사회적 약자 등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는 「문경시 무장해 도시 조성 조례」가 경상북도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첫 성과가 “무소음·안전그레이팅 설치”라 할 수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앞으로도 노후관로 교체공사 등 도로정비사업 시 시민의 안전한 도로환경은 물론 도시미관 정비에도 최선을 다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장성우 기자

경주시립도서관 모바일 회원증 서비스

경주시립도서관에서는 다음달 2일부터 모바일 회원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플라스틱 회원증카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이용자 중심의 휴대성과 편리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회원증’은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경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rary.gyeongju.go.kr)에 접속해 로그인하면 이용이 가능하다.(※단도서관을 방문해 도서대출회원으로 가입 후 이용 가능)

기존의 카드와 달리 모바일 회원증은 회원카드 분실, 훼손에 따른 재발급의 번거로움 없이 카드를 치감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도서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경주시립도서관 관계자는 “모바일 회원증은 기존 플라스틱 회원증 구입에 대한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서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문경중앙시장 가격·원산지 표시 100% 달성 목표



정확한 가격·원산지 표시를 통해 고객과의 신뢰를 만족시킨다.

문경중앙시장장(상인회장 최원현)

은 가격·원산지 100% 달성, 주민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고객 모니터링 및 서포터즈단 3기 발대식을 문경 중앙시장 상인교육장에서 가졌다.

문경중앙시장은 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객 모니터링 및 서포터즈단을 전통시장 5대 혁신과제(결제편의, 고객신뢰, 위생 및 청결관리, 상인조직 강화, 안전 및 화재관리)를 협성하고 점포 관리 카드를 작성할 계획이다.

고객 모니터링 및 서포터즈단 3기는 문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놀이 활동 강사들로 구성된 ‘놀이 협동조합’의 조합원들과 접촉 지역 주부들로 구성되었다.

문경시 전통시장 담당자는 “고객의 입장에서 전통시장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아 수행함으로써 문경중앙시장의 상인의식 개선과 혁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문경/장성우 기자

경주시,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사업 추진

추경 예산 1억 1600만원 편성,
농가 자부담 비율은 30%로 축소

경주시는 농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연말까지 농기계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기계종합보험은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농기계손해, 자기신체사고, 대인·대물배상으로 일반 자동차 보험과 같은 사고 보상을 농기계에 적용시켜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가입기간은 1년이며 가까운 지역농협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추경 예산 1억 1600만원을 편성해 높은 자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농가들의 부담을 완화해 농업인들의 가입률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존 가입 보험료는 국비 50% 지원에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50%였으나, 14일부터는 시에서 총 보험료의 20%를 추가 지원함에 따라 가입 농가의 자부담 비율이 30%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미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기존 보험을 해지한 후 재가입



하면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 대상은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승용관리기, 승용이양기, 광역방제기, SS분무기, 베일러, 농용굴삭기, 농용로우더, 농용동력운반차, 항공방제기(드론포함)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지역농협 포함) 종사자 중 농기계 운전이 가능한 경주시민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영농수행에 기여하고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시비 추경예산을 편성했으나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해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주/한반식 기자

영주시, 백두대간 권역 발전특별법 제정 위한 ‘첫삽’!

영주시·강릉시·충주시·남원시·

구례군·하동군 등 6개 시군 회의

영주시는 지난 29일 영주시청에서 백두대간 권역의 6개도 32개 시군을 대표하는 주요 거점 6개 시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초광역권 백두대간 권역 발전계획 협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민족의 상징이자 국토의 핵심이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권역의 상황 및 백두대간 권역의 체계적인 관리·보호 아래 지속적인 이용과 발전을 도모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상황에 깊이 공감했으며, 향후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경원 영주시 부시장은 “타 지역에 비해 낙후돼 있는 백두대간 권역이 국가의 중요 생태축을 넘어 국가 발전을 견인하는 발전축이 되기 위한 초광역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백두대간 권역 발전특별법 제정」에 뜻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영주/정승조 기자

경남도, 열화상카메라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색출

6월까지 도내 5개 전 돼지도축장 10대 배치

예찰시스템 개선 선제적 방역조치 손실 최소화

경남도동물위생시험소가 열화상카메라를 이용한 가축질병 검색시스템을 도입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국가재난형 악성가축전염병을 조기 예상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3,000만원의 예산으로 도내 5개 전 돼지도축장에 10대(300만원/대)의 열화상카메라를 배치한다.

돼지도축장은 진주 1곳, 김해 2곳, 창녕 1곳, 고성 1곳이 있다.

진주도축장에는 열화상카메라를 이미 배치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나머지 4곳은 6월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열화상카메라는 도축장에 계류되는 돼지의 생체검사 시 활용되며, 돼지가 가축수송 차량에서 하차 후 계류되는 동안 초음파를 이용한 열화상카메라로 병든 돼지를 찾아내게 된다.

발열증상이 나타난 돼지는 정밀검

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만 도축된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주요 가축전염병은 발병 초기에 발열증상이 나타난다. 도는 열화상카메라 도입으로 가축전염병 증상이 있는 돼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발견하여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동엽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도축장은 여러 농장에서 출하되는 가축이 모이고,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직전까지 임상증상을 육안으로 관찰하기가 매우 어려워 교차오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열화상카메라 배치와 절저한 사전검사로 국가재난형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업은 농업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하는 중요한 산업임에도 매년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가축전염병이



발생하여 축산농가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경남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방지를 위하여 돼지사육 농가에 대한 임상검사와 혈청검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하고 있다. 포획 야생멧돼지에 대한 야외 바이러스 검사는 234건 전부 음성으로 판

정되었으며, 양돈농가의 방역관리 실태 점검을 통하여 도내 유입 차단에 힘쓰고 있다.

경남도는 2014년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아 청정경남을 유지하고 있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2020.1.1. 기준 부산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부산시개별공시지가, 평균상승률 6.15%
전국 평균(5.95%)보다는 0.2% 높게 평가

부산시는 2020년 1월 1일 기준 관내 16개 구·군의 개별 토지 68만 8,244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결과, 평균 지가변동률이 6.15% 상승하여(전국 5.95%) 전년도(9.76%)보다 3.61%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부산은 서울(8.25%↑)과 광주(7.26%↑), 대구(7.0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인근 울산(2.36%↑)과 경남(2.99%↑)의 개별공시지가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지가 총액은 전년보다 18조 3,611억 원 오른 296조 5,193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높은 변동률을 보인 ▲해운대구는 10.26%가 상승하였으며 이어 ▲부산진구가 7.39% ▲동래구 6.86% ▲남구 6.84% ▲수영구 6.79% 순으로 높았다. ▲강서구는 2.64%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해운대 등 관광단지 활성화와 주요역세권 상업지역 지가 현실화 반영, 주택재개발·재건축 등 대단지 도시개발 호



재 등이 부산지역 가격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전년 대비 하락 요인으로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경기 하락이 꼽혔다.

강서구는 김해신공항 확장사업 절차 지연으로 대체 1·2동 등 관련 지역 지가가 하락세로 전환되고, 최근 경기침체로 인해 화전산업단지 공장 입주 지연 영향으로 약 보합세를 보였으며,

부산시 용지역별 변동률은 ▲주거지역 7.26% ▲상업지역 7.84% ▲공업지역 5.23% ▲녹지지역 6.18% ▲개발제한구역 4.66%의 상승을 보였다. 주거지역은 10.32%의 변동률

을 보였던 전년보다 3.06% 하락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 부산시 개별필지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241-1번지(서면 엘지유플러스)로 m²당 43,000,000원이며 가장 낮은 곳은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 80-2번지(회동수원지 유입되는 철마천 종류 동측 임야)로서 m²당 94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개발 부담금 등 약 60여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된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경남‘세라믹섬유-융복합센터’ 준공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첨단 소재 세라믹섬유 융복합재의 제조기반과 기업지원시스템 구축의 핵심 기능을 담당할 ‘세라믹섬유 융복합센터’가 준공됐다고 밝혔다.

세라믹섬유 융복합센터’ 건립은 경남도와 진주시, 한국세라믹기술원이 2018년 산업부의 지역산업거점기관 지원사업에 선정돼 유치한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 ‘세라믹섬유 융복합센터’는 총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상 3층(대지 면적 3,000m², 연면적 2,967m²)의 규모로, 1층 세라믹융복합재 제조시설, 2층 평가 및 기술개발실, 3층 기업임주실로 구성돼 있다. 또 1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경량고강도 FRP 및 초고온 내구성 CMC 제조장비 22종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영삼 경남도 산업혁신국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생산제조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세라믹섬유와 같은 혁신소재의 경쟁력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세라믹섬유 융복합센터가 경남의 정체된 주력 제조업의 첨단화 및 고부가 가치화를 가속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함양산삼엑스포 성공 경남도새마을회와 맞손!



조직위·함양군·새마을회·군자회·업무협약
엑스포홍보 및 관람객 유치 적극 협력키로

으로 환영한다. 오늘 체결한 업무 협약이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각자의 시군지회를 통해 엑스포에 대해 널리 알려주시고, 엑스포 기간 중 많은 방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오진윤 도새마을회장은 “새마을회가 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협력하고, 도내 16만여 새마을을 가족들의 힘을 모아 엑스포 홍보 및 관람객 유치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의 입장권 예매는 티켓링크, nh농협, 엑스포조직위에서 가능하며, 1차 예매 기간인 6월 30일까지는 최대 60% 할인된 가격(성인6,000원, 청소년 4,000원, 어린이 2,000원)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예매권 및 입장권 소지자는 엑스포 기간 중(일부는 예매시 부터 올 연말까지) 경남도 내 16개 시군 숙박 및 유료관광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으며, 할인대상 시설과 할인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경남도/김용규 대기자

소화전 활용 상수도관 세관세척 맑은 물 공급한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기존 소화전을 활용해 상수도관 세관·세척 시범사업에 나선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강서구 대저2동 도도본리 마을에서 기존 수도시설인 소화전을 이용해 상수도관 내부의 물때와 침전물 등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강서구 대저2동 관할 지점 1.3km 구간으로 작업 구간 내에 설치된 소화전에 암죽공기와 물을 혼합 주입하여 상수도관

을 세관·세척할 예정이다.

이근희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스마트 관망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주기적인 세관·세척 시행으로 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상수관로의 수명연장에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

부산/김영찬 기자

NH 농협 농업인과 함께 하는 풍기농협

풍기농협은 농민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항상 풍기 농협을 이용하시는 농민 조합원 및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풍기복숭아

풍기인삼

풍기인견

풍기사과

■ 본점 :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45 (동부리 502-5) 전화 (054) 636-2711

■ 주유소 :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51 (동부리 502-1) 전화 (054) 636-5182

■ 백신지점 : 경북 영주시 풍기읍 죽령로 1212 (백신리 101-3) 전화 (054) 636-3209

■ 영농자재센타 :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55번길 17 (동부리 503) 전화 (054) 637-5799

■ 서부지점 : 경북 영주시 풍기읍 동성로 104 (서부리 124-3) 전화 (054) 636-8767

■ 순흥지점 : 경북 영주시 순흥면 순흥로 64 (읍내리 301-5) 전화 (054) 633-2641

■ 봉현지점 : 경북 영주시 봉현면 오현로 54 (오현1리 242-4) 전화 (054) 636-2326

■ 하나로마트 : 경북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45 (동부리 502-5) 전화 (054) 636-2734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 선정

근로자 문화적 갈증 해소 건립 국비 30억원 확보

대불청년친화형산단 공모사업, 10개 사업 추진

영암군이 신청한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이 전남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어 대불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산업단지에 부족한 문화·편의시설을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산업단지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청년친화형·스마트·혁신·노후단지로 지정된 전국의 143개 산업단지(국가산단 28, 일반산단 115)를 대상으로 5개소 선정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공모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 27일 최종 발표했다.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영암군의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센터 건립에 필요한 총사업비 43억원 중 국비 30억원, 도비 6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2018년 말 지정되어 2024년까지 추진키로 한 대불청년친화형산단 세부 공모사업 21개 사업(2,679억원) 중 10개 사업(사업비 661.4억원, 국비 351.9억원)이 선정되어 대불산단을 청년친화형으로 혁신하는데 탄력을 받고 있다.

영암군에서는 사업승인을 위해 전남도, 산업단지공단 대불지사, 전남

테크노파크, 대불산단융합원 등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 사업발굴에 관한 의견을 접약하고 작년 말 발주한 “대불산단과 영암군 상생 연구용역” 결과와 대불산단 내 근로자 표본수요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내용을 구체화하고 대불산단과 경계지에 있는 대불체육공원 내 군유지를 건립부지로 하여 사업계획을 준비함으로써 공원과 야외공연장, 다양한 체육시설 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복합문화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근로자공동세탁소는 2차오염으로 인해 민간 세탁소에서는 세탁을 꺼려하여 2차오염을 감수하면서 자택에서 세탁해 오던 근로자 작업복을 전문적으로 세탁하게 된다.

영암군에서는 공동세탁소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미리 점검하기 위해 작년 11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운영을 시작한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 내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를 같은 해 12월 방문하여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한 후 세탁업은 단독시설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운영비 절감 등을 위해 복합시설과 함께 운영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계획에 반영했다.

이 외에도 작은영화관 및 근로자 다목적관은 단순히 영화상영 뿐 아니라 기업 기념행사나 근로자 격려콘서트 등 근로자 문화적 갈증을 해소하는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시설할 계획이다. 또



한 근로자 안전체험교육관은 높아진 산단 행정복스 운영에 이어 이번 대불산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공모사업이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산업경쟁력 뿐 아니라 문화적 유키총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청년 근로자가 돌아오는 대불산단 조성에 유리한 기회를 선점하게 되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영암군은 앞으로도 복합문화센터, 근로자건강센터, 체육시설 등을 유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청년친화형산단 조성사업 나머지 11개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정부 공모계획에 단계별로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영암군은 이 외에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불산단 활성화를 위한 위기로부터 방파제역할과 마중물역할을 동시에 수행하여 경쟁력 있는 대불산단, 전남서남권 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대불산단으로 혁신해 나가는데 정성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영암/이영석 기자

전주시, 태양광 발전, 에너지 자립도시 동력으로!

10월까지 완산생활체육공원 내 주차장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해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가고 있는 전주시가 체육공원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사업기금 마련에 나선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총사업비 3억 3000만원을 들여 완산생활체육공원 내 주차장에 100㎾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자체적으로 태양광 발전사업을 운영해 전력판매 수익으로 에너지 사업기금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에너지 사업기금으로는 베란다형 태양광(햇살아파트) 보급사업과 저소득층 LED 조명등 교체사업 등 총 20개 사업이 추진 중이다.

시는 주차면 가운데 조성돼 있는

화단의 양쪽 끝에 기둥을 세워 주차 면수 변동 없이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태양광 모듈에서 발생되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과 흐서기 열 반사로 인한 주변온도 상승 등 체육공원 이용 시민들의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축구장과 가장 멀리 위치한 주차공간에 설치된다.

또 대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비를 일부 지원키도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더불어 우리지역에 맞는 지속성을 갖춘 지역에너지 전환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자립도시 전주 실현을 위해 죄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름철에는 주차된 차량에 그늘을 제공하고 우천과 강설 시에는 비와 눈의 가림막 역할을 하는 등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도 제공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는 기후변화와 에너

지 위기로부터 자유로운 전주를 만들기 위해 에너지 자립운동인 ‘에너지 디자인 3040’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으로 완산동 용머리여의주마을과 팔복동 산업단지 주변의 주택 등 총 224곳에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왔다.

또 가정에서 직접 전기를 생산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아파트 베란다 난간에 소규모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공동주택에 설치비를 일부 지원키도 했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더불어 우리지역에 맞는 지속성을 갖춘 지역에너지 전환사업을 지속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에너지 자립도시 전주 실현을 위해 죄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주/이재만 기자

화순군,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사업 추진

6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신청·접수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비농업인 대상

화순군이 ‘2020년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 지원 사업’ 하반기 대상자를 오는 7월 10일까지 모집한다고 31일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농업창업 자금은 최대 3억 원, 주택구입비는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 금리 2%(5년 거치·10년 분할 상환)로 융자 지원한다.

농촌으로 이주하기 전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살다가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5년 미만인 ‘귀농인’, 농촌 지역에서 살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비농업인’이 대상이다. 만 65세 이하인 세대주 이면서 귀농·영농 관련 교육을 100

시간 이상 이수해야 신청할 수 있다.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주 나이에 제한이 있지만, 재촌비농업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또한, 신청 당시 농업이 아닌 다른 산업 분야에서 직업을 가지거나 다른 산업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신청 전년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아동의 정서발달과 가족의 심리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과 언어치료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언어표현 및 발음교정이 필요한 7명에게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언어치료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동 12명을 진단하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1 맞춤형 상담치료가 본격적인 추진되고 있다.

언어치료와 심리상담은 꼭 필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치료수업을 통해 건강한 생각과 밝은 정서를 만들어가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언어 구사력과 발음 교정 등 아동의 기본적인 성장을 군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종현 기자



이 안심할 단계가 아니므로 이용시 안내문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 안전수칙을 지켜 이용해줄 것”을 당부 했다.

영암군은 코로나19의 전국 확진자 급증으로 감염병 확산방지 차원에서 2월 25일부터 운영 중지하였던 음용수용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영암실내체육관 내)의 운영을 재개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민방위사태 발생으로 수돗물 공급 중단 시 최소의 음용·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로 평상시 군민들에게 개방해 음용수를 공급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군민들이 급수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및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직 코로나19 감염병 위험

3700만 원 이상인 자, 병역의무 미이행자,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회생 중인 자는 지원할 수 없다.

군은 사업계획서의 실현 가능성, 융자금 상환 계획의 적절성, 사업지침 인지 여부, 영농 정착 의욕 등 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 심사위원회는 면접 평가의 의무화돼 신청자는 면접 심사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지원 신청서 등 제출 서류 양식은 화순군농업기술센터 누리집 ‘귀농귀촌’ 정보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군은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귀농인 167명을 귀농 창업자금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하고 2020년 상반기에는 10명에게 26억여 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 농업창업과 주택구매 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화순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귀농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 사업은 신규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고 농촌에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관심이 매우 많다”며 “많은 귀농인이 창업자금을 발판삼아 성공한 농업인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화순/이윤상 기자

순천재난재해봉사단, 깊은 골목길 태양광 전등 밝혀

취약골목 40곳 태양광 전등 설치
봉사활동에 참여한 174개소에 전등을 설치해

순천시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남제동과 저전동 일대 취약 골목 40곳에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태양광 전등 설치 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봉사활동에는 재난재해봉사단(단장 정홍준) 및 한국전기안전공사(지사장 조영준) 봉사단원 30명이 참여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안전한 골목길’ 사업은 전기기술을 가진 봉사자들이 해마다 2회 이상 태양광 전등을 직접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174개소에 전등을 설치했다.

태양광 전등이 설치된 골목을 이용하는 남제동 주민들은 “어두운 골목길을 달 때마다 불안했는데 전등이 설치되고 난 후 골목길이 눈에 띄게 밝아져 마음도 편해졌다”고 말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조영준 한국



전기안전공사 전남동부지사장은 “전등설치 후 골목길 만큼 밝아진 주민들의 표정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정홍준 재난재해봉사단 단장은 “낮동안 느낄 수 있는 태양의 밝음을 아간에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안전한 골목길 만들기 사업이 아간 범죄를 감소에 효과가 있길 기대하여, 작은 불빛들이 모여 어두운 골목이 낮처럼 환하게 밝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순천/최종기 대기자

보성군, 보성읍 주민생활권에 ‘숲세권’ 만든다



장흥군 아동심리상담 언어치료 활발

장흥군 드림스타트는 저소득 아동의 정서발달과 가족의 심리 안정을 위해 심리상담과 언어치료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중 언어표현 및 발음교정이 필요한 7명에게는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여 언어치료를 매주 진행하고 있다.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동 12명을 진단하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1:1 맞춤형 상담치료가 본격적인 추진되고 있다.

언어치료와 심리상담은 꼭 필요한 시기를 놓치게 되면 성인기까지 후유증이 남을 수 있다.

장흥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치료수업을 통해 건강한 생각과 밝은 정서를 만들어가도록 도울 계획”이라며, “언어 구사력과 발음 교정 등 아동의 기본적인 성장을 군에서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풍나무 길과 연계하여 유휴 토지 1,000㎡(300평)에는 해바라기 종자를 파종해 여름철에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꽃 단지를 조성했다.

이날 식재된 수종은 단풍나무 20 그루, 황금사자 2천 그루, 애생화인 송엽국 1천 5백 본이다. 인도와 나무사이에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수집한 나무를 가공해 만든 나무칩을 깔아 흙먼지를 막았다.

또한, 단풍나무 길과 연계하여 유휴 토지 1,000㎡(300평)에는 해바라기 종자를 파종해 여름철에 즐길 수 있는 대규모 꽃 단지를 조성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성군은 동윤천, 향토시장, 열선루, 보성읍 복합커뮤니티(2022년 완공예정)까지 이어지는 도심 산책로 조성의 초석을 둘

았다.

또한, 2021년 완료를 목표로 항로 시장부터 보성역 부근 1.7km 구간에 보성강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하천을 따라 걸을 수 있는 산책로 조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도심을 공원화하고, 임기 내에 1천만 그루 나무 심겠다.”라고 말하면서 “사업을 연결하는 통로로 숲과 산책로를 활용해 사업간 연계성,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2020년 역점 사업으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사업

지역경제, 기부문화 활성화 전주형 지역화폐 만든다

시, 자금의 역외유출 막고 지역경제 살리기 위해
오는 11월에 300억 규모 전주형 지역화폐 발행

전주시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 촉진으로 선순환 경제구조를 만드는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과 사업예산이 통과됨에 따라 오는 11월 300억 규모의 전주형 지역화폐(전주사랑상품권)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형 지역화폐는 코로나19로 막대한 타격을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를 도와 지역경제에 불을 지피는 동시에 기부문화와 자원봉사의 활성화도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시는 이 같은 지역화폐를 지역 내

소상공인 사업장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기부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시는 기부천사가맹점 모집해 지역화폐 매출액의 약 1%를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기부천사가맹점의 기부금액은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저소득 층 지원 등 공공사업에 활용할 방침이다. 기부천사가맹점으로 등록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소득공제 혜택(필요경비처리)을 간편하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돋고, 현판도 제공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전주형 지역화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경제·금융종사자와 지역화폐 전문가, 시의원 등으

로 구성된 전주사랑상품권 발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상품권 세부 운영 등에 대한 제반사항이 담긴 시행규칙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전주시의 특성과 지역화폐의 의미를 담으면서 쉽게 기억될 수 있는 명칭을 공모하고 지역화폐 운영대행사를 선정, 플랫폼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나아가 동 주민센터에는 지역화폐 서포터즈를 배치해 카드신청과 충전 방법 등 홍보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신계숙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장은 "전주형 지역화폐의 도입으로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한 축을 담당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전사도시 전주시가 기부문화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유도해 끈끈한 사회적연대를 실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이재만 기자

장흥군가족센터, 특수목적 한국어교육 개강

다문화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



어 교육을 진행한다.

박혜영 장흥군가족센터장은 "새롭게 개설된 특수목적 한국어교육이 각 가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자녀학습지도 및 취업활동을 위한 준비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인 한국 생활 정착과 지역의 인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종현 기자

앞으로도 수업전 생활속 거리 두기와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지키고 한국어 수업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입국 초기 대상자를 위한 기초 한국어와 자녀학습지도, 지역문화, 취업, 국적취득, 토픈시험대비 등의 총 5개 과정이 개설됐다. 주간과 야간 시간을 이용해 실생활에 유용한 한국

화순군, 하천 부유 쓰레기 수거...수질오염 예방

화순군이 예산강·섬진강, 연계 하천의 수질개선과 보전을 위해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

군은 근로자 10명을 투입해 지난 4월부터 하천 부유 쓰레기 정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하천변에 방치된 생활폐기물과 부유 쓰레기를 연중 수거해 12월까지 약 400t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수거한 쓰레기 중 재활용이 가능

한 쓰레기는 선별해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는 위탁 처리할 예정이다.

수거 인력으로 취업 취업계층과 장년층 10명을 채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속하게 쓰레기를 수거해 수질 오염원을 제거하고 깨끗한 하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윤상 기자

구례군,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실시

방접종을 실시한다. 구례읍 주민은 군 보건의료원, 면 주민은 해당 면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받으면 된다.

접종대상은 올해 만 65세가 되는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중 구례군에 주소를 두고 대상포진 접종력이 없는 군민이다.

접종시간은 오전은 9시부터 11시, 오후는 13시부터 15시까지 실시하며 주소지 관할 보건기관에서만 예

구례/강운철 기자

무안군 '미니단호박' 농가 소득원 '힘찬 출발'

1읍면 1특화작물 육성사업 대표 작목
9농가, 1㏊에서 수확작업에 들어가

무안군이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는 미니단호박이 5월 말부터 본격 수확된다고 31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자체 시범재배를 통해 첫 출하됐던 무안산(産) 미니단호박이 올해는 9농가, 1㏊에서 일제히 수확작업에 들어간다.

기준 노지 단호박의 4분의 1크기인 미니단호박은 350g~400g정도 되며, 시설하우스 폴리네트에 덩굴을 뻗어 공중에 열매가 달리는 방식으로 재배된다.

한 주당 7~10개까지 수확이 가능할 정도로 크기가 작지만 높은 당도와 표면 광택을 자랑하면서 최근 웰빙 간편식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 소비 트렌드와 맞아 농가소득 향상에 힘자노릇을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니단호박은 1동(660㎡)당 소득이 일반 노지 단호박보다 다소 높은 500~600만원 수준



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군은 미니단호박의 이 같은 소득을 예상하고 점진적으로 생산인프라를 확장하여 2019년에 시설하우스 1㏊, 2020년 0.4㏊에 여원의 소득을 목표로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니단호박이 지역의 새로운 소득 작목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미니단호박이 '1읍면 1특화작물 육성사업'에 대표작목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무안/김판국 기자

장성군 "복잡한 인·허가 민원, 책 한 권으로 쉽게"



복합 민원처리 안내서 '옐로우시티
장성과 함께하는 쉬운 허가여행' 제작

대한 민원처리 과정이 정리되어 있다. 군청 각 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고르게 배부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복합 민원처리 안내책자 제작을 통해 민원인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고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면서 "담당 공직자들의 업무사항 공유에도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허가 민원은 각종 이해관계가 얹혀 있는 경우가 많아 민원인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장성군은 각종 인·허가 민원의 처리 절차가 요약·수록된 '옐로우시티 장성과 함께하는 알기 쉬운 허가여행'을 발행했다.

책자에는 7개 분야(▲개발민원분야 ▲건축민원분야 ▲환경민원분야 ▲지적민원분야 ▲공간정보분야 ▲부동산관리분야 ▲일반민원분야)에

장성/박태지 기자



지리산과 섬진강의 풍요로움을 담은 구례군 로컬마켓

www.guryelocalmarket.com

구매 문의 ☎ 061)780-8294



대구시, 눈으로 오감만족 드라이브 코스 선정

사회적 거리두기로 쌓인 스트레스 해소
드라이브 코스 추천… 시민에게 활력을

대구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시민들의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눈으로 오감만족 드라이브 코스'를 선정했다.

이번 선정은 코로나19가 4개월 가까이 지속되면서 침체되고 무기력한 생활이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에게 활력을 주고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대구시가 추천한 드라이브 코스는 자연과 역사·문화의 보고 팔공산 코스, 신선이 앉아 비파를 타는 형상의 비슬산 코스, 역사와 레포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대니산 코스, 구슬을 편듯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옥연지 송해공원 코스 등 많은 시민들이 이미 알고 있는 코스도 있지만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코스도 같이 발굴했다.

자연과 역사·문화의 보고 대구의 진산인 팔공산 코스는 천 년 전 왕건과 견훤이 공산에서 전투를 한 곳으로 고려 태조 왕건과 관련된 지명이 많은 곳이다.

드라이브 코스로 잘 알려진 곳이다.

▲ 1코스 : 팔공재삼거리~백안삼거리~동화사입구~수태골~파계삼거리~파군재삼거리

신선이 앉아 비파를 타는 형상을 한 비슬산 코스는 달성군 유가읍 휴양림입구사거리에서 비슬산자연휴양림으로 올라가면 된다.

자연휴양림과 산림치유센터를 구

경해도 좋다.

비슬산 대견봉에는 100만㎡ 규모의 참꽃군락지가 있으며 해마다 이곳에서 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 2코스 : 휴양림입구사거리~비슬산 자연휴양림~주차장~유치원~군호국기념관~유가사~음동저수지~쌍계오거리

대니산 자락을 한 바퀴 돌 수 있는 대니산 코스는 역사와 레포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한다.

산등성이가 마치 다람쥐를 닮았어서 이를 붙여진 다람재에서 바라보는 도동서원과 낙동강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낙동강이 굽이쳐 대니산을 휘감아 남해로 흘러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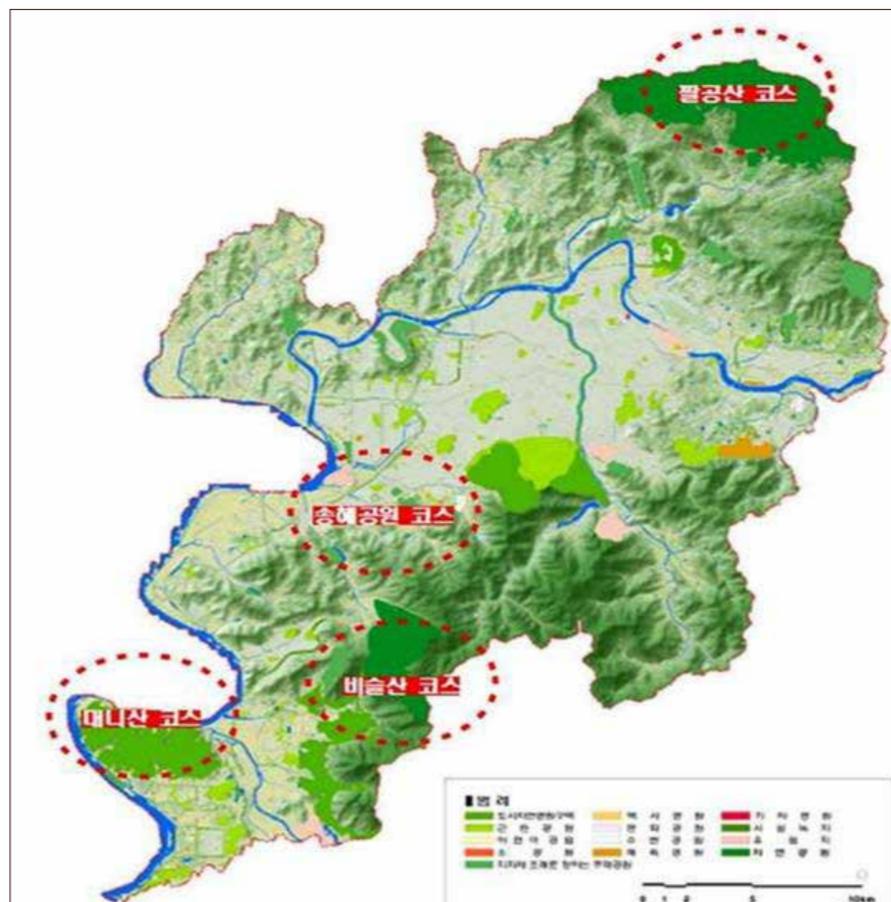
대구지도를 보면 물밖에 드러난 상어 저느러미 모양을 한 곳이 바로 도동서원이 있는 곳이다.

도동서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한국의 서원 중 한 곳으로 서원을 지나면 낙동강레포츠밸리와 오토캠핑장도 나온다.

현풍과 씨십이정려각 앞 용흥지에서 잠시 쉬면서 비슬산의 천왕봉, 조화봉, 대견봉을 감상하는 것도 좋다.

▲ 3코스 : 현풍중·고등학교~다람재~도동서원~오설오토캠핑장~현풍십이정려각~지2리마을회관~현풍중·고등학교

옥처럼 아름다운 구슬을 편 듯한 옥연지 송해공원 코스는 국도에서



옥포로로 접어들면 수령이 오래된 벚나무 터널이 나오는데 봄이면 벚꽃이 장관을 이룬다. 계속 직진하면 옥연지 송해공원이 나온다.

반송삼거리자를 지나 천년고찰 용연사를 들른 후 화원명곡으로 넘어가는 명곡로 도로변에는 봄에는 연산홍이 흐드러지게 피고 늦여름까지 배롱나무 꽃도 볼 수 있다.

기남지에서 잠시 쉬었다가 명곡로를 따라 계속 가다 보면 명고초등학교를 지나 화원119안전센터에 다다르게 된다.

▲ 4코스 : 달성주민건강증진센터~옥연지 송해공원~반송삼거리~용연사입구~기남지~화원 119안전센터

성옹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지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를 선정했다"며 "시원한 가로수길을 따라 펼쳐지는 산과 들 그리고 강을 보면서 생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구/권대순 기자

경북도, 경북의 세계문화유산으로 관광활성화 추진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서울 환구단에서 문화유산을 통한 내수관광 진작을 위해 개최된 '2020 문화유산

방문캠페인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정재숙 문화재청장, 박양우 문화

체육관광부장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등 문화유산·관광분야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문화유산 방문캠페인」은 문화재청에서 「함께해, 봄」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한 행사이다. 관련 사업으로 세계유산축전, 궁중문화축전 등 '5대 특별사업'과 천년정신의 길(경주, 안동) 등 '7개 방문코스'를 통해 국민들에게 문화유산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경북도는 '5대 특별사업' 가운데 하나인 「세계유산축전 경북」을 오는 8월 한 달 간 경주, 안동, 영주에

이 도시사, 문화유산 선포식 참석
관광홍보 통한 관광활성화 기대

서 개최한다. 「세계유산축전 경북」은 3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세계유산을 소재로 전통공연·재현행사, 세계유산 세미나, 워킹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세계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기획할 예정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축사에서 "문화유산 방문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경북에도 많은 국민들이 방문해 지역의 청정한 환경과 문화유산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조 기자

문경시, 문경문화예술회관 운영 재개

지역 예술계에 활력 불어넣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조심스런 개관

경북 문경문화예술회관은 코로나19 여파로 그동안 운영을 중단했던 공연장을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침체된 지역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6월부터 재개관하기로 했다.

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감염병 확산의 우려가 있어 생활 속 거리두기 정부 지침에 따라 제한적 운영 기준을 수립하고, 철저한 방역 시설을 완비해 5월 28일 무관중 비대면 유튜브 실시간 중계 공연 '랑랑음악회'를 시작으로 6월부터 현장공연 및 대관행사를 조심스럽게 실시할 예정이다.

문경문화예술회관은 공연 및 대관행사 전, 후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모든 입장객은 마스크 착용을 원칙으로 공연장 입구에 있는 대인소독기 통과, 자동 손 소독기 사



용,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 체크를 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실시한다.

특히 공연장 내부는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1m 간격 좌석 벨트를 설치하여 안전한 공연장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

문경문화예술회관은 "안전한 공연 문화 제공을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더라도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입장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문경/장성우 기자

영천시 우로지 생태공원, 음악방송 시범운영



경북 영천시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 망정동 우로지 생태공원에 음악방송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악방송은 우로지 생태공원 내 설치된 공공와이파이의 시간별 접속 자료를 참고해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감각적인 팝송음악이 제공된다.

6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시간과 음악장르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우로지 생태 공원을 시작으로 6월 중으로 시청 소공원에도 음악방송을 시작할 계획"이라며 "음악방송 제공으로 시내 곳곳에 도심 속 힐링 공간을 조성해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영천/한반식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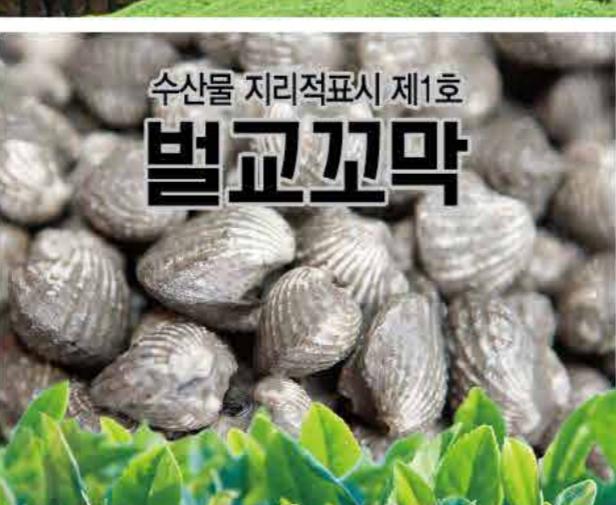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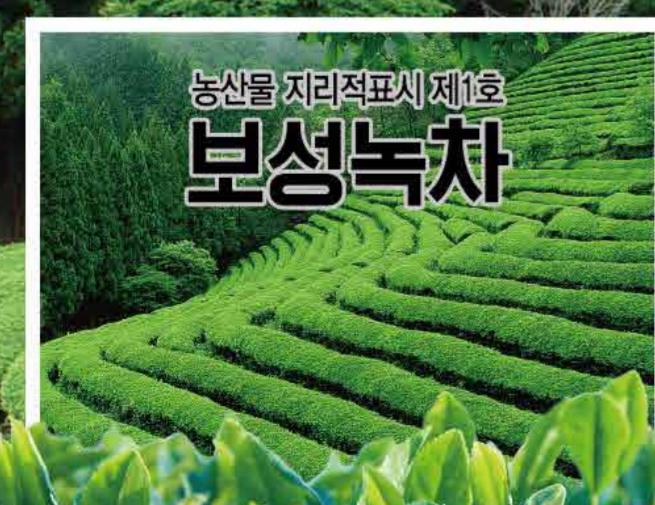
검찰연합일보 새풀포커스

www.unionilbo.com

회장 송원기
대표전화 : 1899-2026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42, 3층(대치동, 덕유빌딩)
2020년 5월 13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 가 50141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026 / 구독료 : 월 15,000원 - 1부 8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속통하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 1등 보성군



품과 행복이 넘치는 희망찬 보성



보성 몰
집에서 청정 보성의 우수농특산물을 만나보세요!
mall.boseong.go.kr

보성몰 ▾ 검색

유튜브 구독하고
댓글 달면 보성녹차를
얻을 수 있다고?!



* 매달 추첨을 통해 보성군 페이스북에 당첨자 게시를 합니다.

보성군 대표
SNS 가입하기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greenboseong/>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boseonglove>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greenboseong/>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hannel/UCN2YTtYuYKbSbh69PgCpyQ>

경제칼럼



▲문기주 대표회장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는 날!

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대중 의존도는 심화되어 2016년 북중 교역액 60.5억 달러, 대중 의존도는 87.4%로 추정된다.

● 남북경협 혁신적 '일대 전환점'

개성공단조성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인력이 우호적으로 긴밀하게 결합하여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남북교류 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한 역사적 대업이었다. 우리 측은 9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고, 북측은 3 단계까지 2,000만평의 토지를 제공했다.

개성공단 사업을 개괄하면 북한이 70년간 토지 이용권을 남한 측에 임차하며, 총면적은 2000만 평으로, 이 가운데 개성공단이 850만 평, 배후도시가 1150만 평이다.

개성공단의 최종 지향점은 이 지역을 중국의 선전(深圳)이나 푸동(浦東) 경제특구와 같은 국제자유경제지대로 지정해, 제조·금융·상업 및 관광산업을 포괄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종합적 국제자유도시로 발돋움 하는 것이다.

개성공단 조성은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의 하나로 동년 8월 9일 한국의 현대아산(주)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공업지구 건설에 합의가 그 단초이다.

2000년 6월! 당시 김정일 국방 위원장은 故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과 회동에서 “개성을 내주겠다. 군인들을 제대시키 공업지구에 30만 명의 노동력을 대주겠다.”고 호언한다.

김정일은 군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래 해주(海州) 대신 개성을 남북 경협공단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후 북한군의 전략적 요충지인 ‘개성~문산’ 루트를 담당하던 인민군 6사단, 64사단 등은 개성공단이 들어서면서 송악산 이북과 개풍군 일대로 물려 섰다.

2004년 12월 개성공단 시범단지 분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의 첫 반출이, 2006년 9월에는 본단지 1차 분양기업 첫 반출을 시발로 2010년 9월에는 입주기업 생산액이 총 10억 달러를 돌파하였고, 2012년 1월에는 북측 근로자가 5만 명을 돌파하였다.

입주기업 현황을 보면 2012년 3월 현재 섬유(72), 화학(9), 기

계금속(23), 전기전자(13), 식품(2), 종이 목재(3), 비금속 광물(1) 등 모두 123개 업체가 가동 중이며, 생산 규모를 보면, 2008년(2억 5천만 달러), 2009년(2억 5천만 달러), 2010년(3억 2천만 달러), 2011년(4억 달러) 등 누계생산액이 12억 6천만 달러를 돌파했다.

근로자 현황을 보면, 북측 근로자는 2005년(6천명), 2006년(1만 1천명), 2007년(2만 2천명), 2008년(3만 8천명), 2009년(4만 2천명), 2010년(4만 6천명), 2011년(4만 9천명) 등이었고, 2012년 1월에는 드디어 5만 명을 돌파하였다.

● 두 번째 ‘개성공단 조성’ 흐름?

개성공단이 재개되기도 전에 두 번째 개성공단 조성하는 흐름이 재삼 거론되고 있다. 제2개성공단은 경기도 파주 일대에 남북 경협협력 차원의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지자체인 경기도를 중심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개성공단은 남한의 자본,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된 노동집약적 형태인 반면, 파주에 조성될 남북경협 산업단지는 남과 북의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첨단산업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파주와 개성의 거리가 12~20km 정도로 그리 멀지 않아 북한 노동자들이 이동하기에 부담되지 않고, ‘산업단지 조성시 특별법’을 신설해 임금 문제는 조정할 수 있으며, 고학력 출신의 북한 노동자들이 첨단산업단지에 유입되는 형태여서 개성공단과도 다를 것이라는 전언이다.

업계는 개성공단이 경쟁력 있는 이유로 △ 저렴한 인건비 △ 풍부한 인력 △ 물류비 저렴 등을 꼽으면서 북한 노동자가 국내로 유입되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예상한다.

하지만 북한 노동자들이 국경을 넘어 매일 출퇴근하는 문제는 현행법과 정치적 여건 등을 고려해 난관이 많을 것이다.

실제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직전 북한 노동자는 5만 3,000여명(124개사)으로 당시에도 개성공단 외곽에서의 출퇴근 문제가 떠올라 기숙사 등이 검토된 바 있기 때문이다.

● 개성공단 재가동 ‘화해의 시금석’

개성공단은 젊고 손재주도 뛰어난 생산직 인력이 풍부한데다 인건비까지 저렴하다는 게 강점이다. 또한 개성공단은 가까워 물류비가 적게 들고 근로자들 모두 말이 통한다는 점도 강점이다. 그러나 국제질서에서 해법이 도출돼 경협의 물꼬가 트이더라도 국내에서 풀어야 할 문제도 상당하다.

개성공단 기업 입장에서는 장기 폐쇄된 공단을 재개하기까지 정치적 안정성 확보, 수리비용 부담, 해외 구매자 설득, 경협보험금을 반환 문제, 북한 근로자 임금 처리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

남북 경제협력 협약과 지원금을 반납해야 하는 자금 마련도 숙제다. 개성공단이 재가동되면 기업들은 2년 2개월 폐쇄로 인해 받았던 경협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지난 2016년 2월 갑작스러운 폐쇄 결정 이후 정부로부터 경협 보험금 형태로 5,500억원의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았다.

이중 고정자산에 대한 피해지원액 약 3,700억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시 반환해야 한다. 다만 기계의 노후화 등 기업이 입은 손실을 감안해 최종 반환액이 결정되는데, 이 과정이 갈등요소로 떠오를 수 있다.

개성공단은 통일 선진국 독일이 부려온 자본주의 학습장이었다. 현장을 둘러본 독일 유력 정치인이 ‘분단 시절 독일에도 이런 곳이 있었더라면 동·서독의 경제·사회 통합 과정에서 시행착오와 충격을 줄였을 것’이라고 호평했다.

공단 입주기업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자본주의 경제원리를 체험했다.

이런 무한효용도의 개성공단의 재가동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남북이 모두 만족할만한 성과를 낸다면 제2, 제3의 남북합작 공단 건설은 남북화해의 현실적 대안으로 성큼 자리잡을 것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재개의 첫 관문은 유엔의 대북 제재 및 미국의 독자 제재다. 북한 당국의 비핵화에 따른 제재 완화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개성공단 재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설

총력 기울여야 할 2주간 수도권 감염확산 방지

왔겠나.

코로나19 사태는 쿠팡에 매출 증대의 기호로 작용했다. 쿠팡은 빠른 ‘로켓 배송’에 치중해 방역을 뒷전으로 미룬 과오를 빼아프게 자성해야 한다. 최근 감염 경로 미확인자의 비율이 급등해 우려를 더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4월 29일~5월 13일 4%였던 미확인자 비율은 생활방역 전환 이후인 지난 13~27일 7.6%까지 높아졌다.

감염 경로를 제때 파악하지 못하면 제1 감염원을 놓치게 되고 결국 n차 전파로 이어지면서 또 다른 감염을 유발하게 된다.

백신이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으려면 다시 경각심을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다. 수도권 등 감염 우려가 높은 지역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해야 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부터 6월 14일까지 박물관 등 수도권의 모든 공공 디자이너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한다”며 “주간 수도권 감염확산을 막으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할 것”이라고 했지만 상황이 악화하면 그전이라도 시행해야 한다. 국민적 피로도와 경제 악영향이 우려되지만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하는 건 없다.

한국판 뉴딜, 재정지원 사업에 그쳐선 안된다

코로나19 이후 국제적인 인적·물적 교류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글로벌 분업체제가 개편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전 세계를 무대로 광범위하게 연계된 글로벌 가치사슬에 기반을 둬 작은 부문만 생산하기에는 국가 간 이동에 따른 불확실성과 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범위의 글로벌 가치사슬을 유지하는 것이 개별 국가의 경쟁력에 반드시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것이 모든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가 해체되고 국가 내부 단위의 생산체계로 개편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 국제분업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자급자족 경제로의 지향은 비용증가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인 범위는 아니어도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지역적인 분업체계는 여전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이러한 지역적 국제 생산 네트워크가 공존하되 이들 국제 생산 네트워크 간에 일종의 분화가 발생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제1·2차 세계대전 사이 전간기(戰間期)에도 세계화 후퇴와 자국중심주의 강화가 나타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에도 진행되고 있었고 이후 더욱 강화되고 있는 미국 중심의 경제체계에 강하게 연계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국제 생산 네트워크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과학기술과 혁신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기업과 협력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정도의 자체 역량을 우리 기업이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미국이 자신의 경제 네트워크에 우리를 편입시킬 이유가 많지 않다.

코로나19 이후 추진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이 단순한 재정지원 사업에 그쳐서는 곤란하고 기업의 혁신 역량을 실제로 제고할 디지털 전환 및 산업구조 개편과 결합돼야 하고 이를 위한 규제환경 개선이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Total Support

시제품 제작의 극대화로 "세계를 앞서 가는 최첨단 기술"

만들고 싶은 시제품이 있으시면 먼저 상담해 주세요. 이미지만 있어도 OK입니다.
아이디어를 이메일로 전달해 드립니다.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시제품 개발이 필요하십니까?

최첨단 기술력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와 협력할
최고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수지가공 Resin processing



다양한 수지 분야에서 시제품부터 양산품까지

진공주형 Vacuum mould



금형을 제작할 정도가 아닌 소량일 경우에는,
신속한 납기와 저비용의 장점이 있는 진공주형으로 대응

저희 '제스트'는 다양해지는 기업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시작 모델부터 수지 가공, 금속 가공, 진공주형, 판금 가공,
간이금형, 양산, 그에 따른 2차 가공까지 시제품 제작을 중심으로
상품화를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앞으로도 고객님이 필요로 하는 모든 분야에서 Total Support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금형 · 본금형

Simplified mold &
Principal mold



소량부터 양산까지 저비용, 고품질로 신속하게 대응



금속가공 Metal processing



다양한 금속가공 방법을 통해 고객의 요구 – Total Support

판금가공 Sheet metal processing



다양한 재료의 판재로 가공한 후 열처리 도장 및 도금 등의
후 처리까지 Total Support